

[ 사회 ]

# 하늘서 전한 한국 아이 사랑

## 한국판 '신들러리스트' 故 브레이즈델 목사 회고록 한국어 판권 받은 광주 충현원 내달 1일 출판기념식

한국전쟁 초기, 서울에 남아있던 전쟁고아 1천여명을 피신시켜 한국판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고(故) 러셀 브레이즈델(Russell Blaisdell) 군목은 하늘 나라에서도 한국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했다.

고 브레이즈델 군목은 지난해 초 아들(74)에

게 "자신의 회고록 '전란과 아이들, 그 일천 명의 아버지'의 한국어 판권을 한국 전쟁 당시 고아원이었던 광주 '충현원'에 건네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 해 5월1일(향년 97세) 미국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의 송고한 뜻은 한국어판 회고록 출판을 준비하던 '충현원'이 오는 5월1일 '고 브

레이즈델 목사의 1주기 추모 및 회고록 출판기념식'을 열기로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공군 중령이던 브레이즈델씨는 미 제5공군사령부에 군목으로 배속돼 1950년 7월 한국에 파병됐다. 당시 부산방어선을 놓고 북한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미군과 국군은 그해 9월 서울을 탈환한다. 서울에 입성한 브레이즈델 군목은 수천 명의 고아를 발견하게 되고, 이들을 병원과 고아원에 데려다 주기를 반복했다.

"서울 거리를 차로 지날 때마다 그 아이들을 보았다.. 아이들은 병에 시달리고 해충으로 뒤덮여 있었다. 수많은 아이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회고록 중에서) 하지만, 3개월 뒤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또다시 전세가 바뀌기 시작했다.

모든 군대와 시민들이 고아들을 남겨둔 채 서울을 철수했지만, 브레이즈델 군목은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수많은 고아들을 차량에 싣어 남쪽으로 피난길을 떠나 보냈지만, 서울에는 여전히 1천여명의 아이들이 남아있었다. 그는 1천명의 아이들을 전담해 한 가운데 인 서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정선인이 뛰어다녔다.

중공군이 서울에 들어닥치기 직전인 12월20일, 그는 미 공군의 작전지휘관이던 로저스 대

령을 만나 제주도로 향하는 C-54 수송기를 확보했고, 아이들을 제주도로 안전하게 수송했다.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옮겨다녔던 그는 이 일로 미 공군 당국으로부터 감찰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는 회고록에 "저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군목의 일이 고아들의 문제를 무시하고 그들을 적지로 남겨두어 죽게 하는 것이라면 저는 당장 전역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군 중장급과 연관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국전쟁 때부터 40년간 고아들을 돌봐온 '충현원'은 국내 현존 보육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1949년 선교사 로버트 윌슨(Robert M. Wilson)이 사택에서 40여명의 고아를 돌보다 1952년 고 박순이 여사가 '충현 영아원'을 설립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충현원 유혜량 목사는 "미국에서 브레이즈델 군목을 만났을 당시 '한국은 이제 살만한데 왜 자꾸 미국으로 입양아를 보내는지 모르겠다'며 서운해 하던 그의 얼굴이 기억난다"며 "조건 없이 한국 어린이를 사랑했던 그의 마음을 책을 통해 꼭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헌주기자 ahj@kwangju.co.kr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고(故) 브레이즈델(중앙에 모자를 쓴 남자) 군목이 서울에 남아 있던 전쟁 고아들과 지내던 모습. (충현원 제공)

### 뿌연 아침 안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4월 15일**  
(음 3월 10일)   
◇ 전국날씨

|    |       |        |
|----|-------|--------|
| 광주 | 구름 조금 | 9~23℃  |
| 주요 | 구름 조금 | 8~21℃  |
| 여안 | 구름 조금 | 11~19℃ |
| 완도 | 구름 조금 | 8~21℃  |
| 구례 | 구름 조금 | 6~23℃  |
| 해남 | 구름 조금 | 6~22℃  |
| 남원 | 구름 조금 | 7~22℃  |
| 홍성 | 구름 조금 | 6~23℃  |
| 영진 | 구름 조금 | 5~21℃  |
| 진천 | 구름 조금 | 6~23℃  |
| 진주 | 구름 조금 | 7~23℃  |
| 남원 | 구름 조금 | 5~24℃  |
| 속초 | 구름 조금 | 7~15℃  |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0.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동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10:45 썰물 < 03:22  
23:02 썰물 < 16:11  
여수 밀물 < 06:00 썰물 < 12:21  
18:26 썰물 < --:--

▲해돋이 06:00 ▲해질 19:05 ▲달돋이 14:13 ▲달질 03:13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16(수) | 17(목) | 18(금) | 19(토) | 20(일) | 21(월) |
|-------|-------|-------|-------|-------|-------|-------|
| 날씨    |       |       |       |       |       |       |
| 최저/최고 | 11/21 | 10/18 | 9/23  | 9/24  | 9/24  | 10/21 |

## 조선대, 베트남서 한국어 가르친다

### 이달말 여학당 설립

조선대학교가 베트남에 한국어 교육기관을 설립한다. 조선대 언어교육원(원장 김재홍 교수) 산하 기관으로 세워지는 '세종한국어학당(학당장 안경환 교수)은 오는 4월 말 베트남 국립호치민대학교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개강은 8월로 예정되었다.

'세종한국어학당'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베트남인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조선대와 호치민대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다. 조선대는 한국인 강사 2명을 파견할 예정이며, 호치민대는 강의실과 초급 한국어를 가르칠 베트남인 강사 등을 제공하게 된다. 한국어의 쓰임새에 따라 ▲일반 한국어(초·중·고급과정) ▲비즈니스 한국어 ▲생활 한국어 ▲무역 한국어 등의 과정이 개설된다. 과정에 따라 1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한 코스가 마련될 계획이다.

수강료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사설 한국어 교육기관(월 한화 3만원 가량)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정해진다.

'세종한국어학당'을 수료한 베트남인들에게는 조선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주어진다. 또 조선대는 한국어-베트남어를 함께 사용하는 계간지 '한-베 문화'(가칭)를 출간해 베트남에 한국 문화를 소개할 방침이다.

/정삼필기자 camus@

##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2배 급증

### 치의학은 530명으로 늘어

2009학년도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MEET·DEET)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선발 인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이 전년대와 조선대를 비롯한 27대 대학에서 1천641명, 치의학전문대학원은 8개 대학에서 530명 등 2천171명으로 지난해 1천260명(의학 840명·치의학 420명)에 비해 늘었다.

전남대 의학전문대학원은 63명(학부 과정 62명과 병행 모집), 치의학전문대학원은 70명이며,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125명, 치의학전문대학원은 70명 등을 모집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2009학년도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는 오는 8월23일 실시되며 자연과학 추론 I·II 과목의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삼필기자 camus@

## "형님 대신 주사로 불러주세요"

### 광주 북구청 호칭 개선

광주의 한 일선 지자체가 근무 시간에 하위직 직원을 부를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형님' 등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북구청에 따르면 구는 공직자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7급(주사보·主事補) 이하 하위직 공무원 호칭'을 '주사(主事·6급 공무원 직급)로 통칭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북구청에 근무 중인 7급 이하 공무원은 전체 직원(901명)의 절반을 넘는 541명이다. 직원들은 그동안 근무시간에

동료나 부하 직원을 부를 때 나이와 성별 등을 감안해 '형님' '××여사님' '××야'로 불러왔다. 그러나 이 같은 호칭이 서로 친밀도와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다른 직원이나 민원인이 볼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 중 직원 설문조사를 벌여 남녀 불문하고 7급, 8급(서기·書記), 9급(서기보·書記補)의 호칭을 '주사'로 개선해 사용키로 했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호칭 개선으로 대내외적으로 공직자 위상 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



대중교통 노선 지도 무료 배포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와 대중교통 서포터즈인 (사)메트로엔젤은 14일 오전 광주시 상무역에서 '광주시 대중교통 노선 안내 그림지도' 제작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에게 지도를 무료로 배포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노선을 알기 쉽게 표현한 그림지도는 주부 봉정선(광주시 광산구)씨의 아이디어와 광주일보·광주은행 등의 후원을 받아 제작됐다. /최현배기자 choi@

## 휴대전화·인터넷 비방도 학교폭력 포함 처벌키로

9월부터 성폭력과 휴대전화, 인터넷 비방도 학교폭력에 포함해 처벌받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이 지난달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을 곧 마련해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범위에 학생 간 성폭력과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비방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학교장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 경찰서 폭력·강력팀 통합 운영

어청수 경찰청장은 14일 치안역량이 나뉘어 있고 팀별로 5~6명이 배치돼 있는데 이를 통합 운영하고 팀원 수도 10~12명으로 늘려 '대(大)팀제'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팀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현장에 형사들이 좀 더 많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 청장은 특히 "팀별로 구역을 할당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토록 하겠다"며 근무표 순번대로 사건이 할당되는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 호남예술제

## 전통의 융합예술제전 - 전국대회

**진행기간** | 음악·무용·국악: 2008년 4월4일(금)~11일(금)  
미술·서예·논술: 2008년 5월1일(목)~ 9일(금)

**진행장소** | 단국대 (한양대우정빌), <http://www.kwangju.co.kr>  
무한·일문 접수처

**주최**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주관** |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후원** |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문의** |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홈페이지** | <http://www.kwangju.co.kr>

**주최**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주관** |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후원** |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문의** |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홈페이지** | <http://www.kwangju.co.kr>